

달콤한 꿀향기를 선물하세요~!

여성봉우회

'하니하니 데이' 행사 성료

서울 남부터미널역 사거리...벌꿀, 꿀차 시식



하니하니 데이에 참석한 전기현 회장과 윤화현 경기지회장, 여성봉우회 회원들

매년 12월 12일에 열리는 '하니하니 데이'가 하나의 문화코드로 자리 잡았다.

한국양봉협회 여성봉우회는 지난 9일 서울 남부터미널역 사거리에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벌꿀을 선물하는 날이라는 뜻의 '하니하니 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김민순(일명 봉이엄마) 여성봉우회 회장을 비롯한 봉우회 회원(김선희, 김향숙, 이현우, 김다인)과 윤화현 경기지회장은 이날 하니하니 데이를 홍보하는 홍보전단을 배포하고 벌꿀과 꿀차 시식, 꿀벌 및 제품 전시를 실시해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다.

꿀을 좋아하는 곰돌이 푸우와 꿀벌 인형탈의 등장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으며 양봉농가가 직접 가져온 벌꿀 제품은 국산벌꿀의 신뢰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했다. 실제로 지나가는 사람들 중 일부는 "시중의 꿀을 믿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직접 벌도 보여주고 양봉농가가 직접 홍보하는 제품을 보니 믿음이 간다"며 벌꿀을 구입하기도 했다.

김민순 여성봉우회장은 "하니하니 데이는 서양의 기념일이나 상업적인 목적의 기념일과

달리 양봉농가가 직접 국산 벌꿀을 홍보하고 좋은 꿀을 소비자에 전달하는 아름다운 문화”라며 “미흡한 점을 계속 보완해 하니하니 데이를 소비자들에게 인식시키고 더욱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희 여성봉우회사무국장은 “같은 장소에서 매년 행사를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대전 으능정이 거리에서 매년 하는 하니하니

데이는 이제 자리를 잡았다”고 밝혔다.

한편, 4년 전 농진청 이명렬 박사가 창안한 하니하니 데이는 올해로 3회째 행사를 진행했으며 충북 청주 본정통 거리(충북지회), 대전 으능정이 거리(충남·대전지회)에서도 함께 진행됐다. **양봉**

● ‘하니하니 데이’

12(한이-honey)월 12(한이-honey)일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벌꿀(honey)을 선물하는 날입니다. 수만 마리 꿀벌이 온갖 예쁜 꽃을 찾아 꽃꿀을 수집하여 저들의 온몸으로 숙성시킨 벌꿀에는 사랑과 정열과 대자연의 신비가 담겨있습니다. 벌꿀에 담긴 따뜻하고 감미로운 사랑을 매년 12월 12일 Honey! Honey! Day에 연인에게 친구에게 부모님께 선물하세요.

● 여성봉우회

한국양봉협회 여성봉우회는 여성 양봉인 15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2006년 12월 발족했다. 여성봉우회는 하니하니 데이 행사를 주관하고 협회 도우미로서 활동하고 있다.



곰돌이 푸우와 꿀벌이 홍보하는 우리 벌꿀



진짜 벌인가?



꿀차드세요



꿀 사랑은 아이때부터



벌꿀 시식 모습

♣ 충남·대전 하니하니 데이 행사



학생들에게 하니하니데이를 홍보하는 본회 회장



군인 아저씨도 벌꿀 먹고 힘내요



벌꿀 시식에 모여든 시민들